

외국 대학생의 정치참여

전 신 욱 |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

1. 서 언

16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지금, 대학가는 전례 없이 조용하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16대 총선을 맞아 시민운동의 강력한 열풍 하에서 학생운동은 잠복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신 정부 출범 이후 '민주-반민주 대립구도의 소멸', '학생운동 역량의 약화로 인한 주도권 상실'과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현실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치참여 방식의 변화'에 있다고 보여 진다. 통상적으로 과학기술문명의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행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온다. 그래서 대학생들의 삶의 목표와 방식도 이상적이기보다는 보다 현실 적응적이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각국의 대학생들도 분화와 발전의 정도가 낮았던 시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격렬하고 물리적이며 불법적이고 아노미적인 정치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의사를 관철하고자 했다. 정치참여란 정치지도자나 그들이 행한 정책결정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살펴보면 학생 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 촉진 운동은 필연적으로 정치성을 띠게 되고, 그들의 이해관계의 표출은 긍정적이든 부

정적이든 국가의 정책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참여의 면면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므로서 그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각국의 학생운동을 살펴보면 국가의 성격과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표출되는 모습과 내용에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시기적으로 보면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가장 강하게, 그리고 널리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현재 우리 나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 일본, 중국의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60년대 이후 그들 국가에서 진행된 학생들의 정치참여의 양태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외국 대학생의 정치참여 사례

1) 미 국

학생들의 항의 운동은 1960년 남부의 많은 대학에서 시작되었다. 주로 아프리카계-미국인들을 중심으로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60년대 중반부터는 대학내·외에서 인권 운동의 초점은 '인

증 차별 폐지'에서 '흑인 지위향상 운동(black power)'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64년에 캘리포니아의 버클리 대학에서는 학생들에 의한 정치 조직화를 금지하는 대학 정책에 저항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64년 10월부터 1965년 1월 사이에 일어난 버클리 대학의 학원 소요는 '대학생의 언론자유 운동'(FSM: 'The Free Speech Movement')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운동은 학내 정치활동 보장위원회(CCPA: The Campus Committee on Political Activity)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학생들의 언론자유 운동에 대한 요구는 대학인들이 발표에 대한 권리를 일반 사람들의 발표권과 동등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언론자유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것은 1964년 12월 3일 버클리 대학의 '스프롤·홀'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하던 학생들에게 경찰이 퇴거, 해산명령을 내렸는데, 학생들은 퇴거명령을 거부하였고, 732명의 시위 학생들이 체포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언론자유 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과격파 학생들은 대학 내의 여러 가지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통적인 철학과 가치에 도전하여 경제적·교육적 개선, 여권 신장과 평등, 외교정책 변화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후 정치화된 학생운동은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전쟁 참전 반대가 학생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고, 다른 신 좌파(New Left)와 합세하여 기존 체제와 정부의 정책에 도전하였다. 1964년 이후에는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은 전쟁과 징집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1968년의 처음 5개월간은 반전(反戰) 집회들이 콜럼비아, 하버드, 버클

리, 오벌린,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일제히 열리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대학들을 신병 모집의 거점으로 활용했던 CIA와 ROTC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많은 대학에서 빌딩의 점거와 재산의 파괴 등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1968년 4월 23일에 시작된 콜럼비아 대학의 격렬한 학생 소요사태는 과격파인 민주사회학생회(SDS: Students for a Democratic Society)가 중심이 되어 학내 문제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이슈로서 인간 착취를 조장하는 인종차별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체제에 대한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격렬한 학생운동은 시작하자마자 곧 기운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1970년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에 대하여, 그리고 오하이오 Kent주립대학에서의 학생 4명의 죽음에 대한 학생 항의운동이 얼마 동안 격렬했던 양상을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반전운동의 열풍은 결코 1968년의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어찌되었든간에 '60년대의 미국 대학생들의 '스튜던트·파워 운동'은 사회 일부 계층의 호응과 지지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 자유주의적 지식인, 흑인 민권운동가, 여권신장론자 등의 경우는 기존 체제의 변혁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었다.

1970년대에는 학생 활동주의(student activism)를 상당히 감소시킨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많은 대학생들에게 학생 항의 운동의 명분을 제공하였던 베트남 전쟁이 끝이 났고, 학생들의 관심사도 폐적한 삶을 위한, 자신의 삶과 밀접한 환경오염·보건·사회복지 등의 문제와 더불어 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인 '직장을 구하는 것'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보

1) 朴稚榮교수는 60년대 이후의 학생운동을 '스튜던트·파워' 운동이라고 지칭하였는데 '스튜던트·파워'란 원래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의 과정에 참여할 권력을 뜻하는데, 이것은 모든 학생들을 동원하여 그러한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朴稚榮, 「美國에서의 스튜던트 파워」, 『國際問題』, 1981.3. pp.29~35.

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학업에 전념해야만 했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경제는 호전되었고,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고용전망에 대해 다시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학생운동의 빈도와 크기는 어디에서도 전과 같은 수준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치적인 분위기와 조건도 바뀌었고, 1980년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Ronald Reagan)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도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학생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부(富)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1980년대의 YUP(Young, Urban, Professional) 젊은 학생들의 역할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다시 학생 항의 운동이 정점을 이루기도 했다. 게이(gay)와 레스비안(lesbian) 학생들이 그들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화를 시작하였고, 인종에 기반을 둔 운동들이 이 기간 중에 극적인 증가 양상을 보여 주었다. 예를 들면, 많은 대학에서 아시아인, 라틴계인, 그리고 아프리카계-미국 학생들의 집단들이 인종에 바탕을 둔 학과를 개설하기 위해 학교 당국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60년대와 '70년대는 학생운동의 전성기로서 시민권과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대한 이슈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학생들 사이에는 총체적인 일체감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인종적, 또는 다른 소수 집단들의 욕구와 관련된 다양한 규모의 집회들은 많이 존재한다. 그들의 관심사나 저항은 좀더 국지적인데, 예컨대 동성연애의 지지자들은 동성연애연구학과를, 아시아계-미국 학생들은 아시아 연구 프로그램을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어떤 경우

는 수업료 인상이나, 대학에서의 알콜 제한 문제들에 관심을 갖기도 하는데, 워싱턴 대학에서는 최근 사고 모임에서 알콜을 금지하는 정책에 대해 학생들의 폭동으로 24명의 경찰관이 다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회로부터 학생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와 학생 환동에 대한 지지를 상실케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개한 환경운동은 모든 대학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정치사회에 환경의식을 일깨움으로서 국민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30년 전에는 수십만 명의 학생 항의자들이 시민의 권리 요구와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 행진하였다. 오늘날의 학생운동가들은 그들의 선배만큼이나 변화에 대하여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동성연애자들의 권리나 환경보호에서부터, 인종 차별 철폐 조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그러나 1960년대의 대중매체들이 학생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의 학생운동은 어떤 현상에 대하여 냉담 내지는 무관심이 지배적인 경향이라고 간주하면서, 대중매체들은 학생운동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실제로 학생들은 전통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냉소적이다. 학생들은 공화당, 또는 민주당의 정치에 대해서 보다 미안마에서의 인권과 같은 단순한 이슈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²⁾

최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은 주로 주변적이고 적은 수의, 크고 분명한 이슈들이다. 요컨대 인권문제나 베트남 전쟁(사람이 죽어 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졌고, 정치와 무관한 문제로는 대학의 수업료 인상과 티벳에서의 인권 문제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갖는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2) 1996년 대통령 선거에서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10분의 7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정당에 대해 회의적이며, 정치과정에 실망을 느끼고, 정치인들을 불신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1996년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이 정직하고 믿을 만하다고 본 사람은 17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가운데 2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이러한 통계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미국의 젊은이들은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의 베트남 전쟁 시기 보다는 더 많은 관심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인종 차별, 경찰의 법 집행의 폭압성, 엘리트주의의 만연, 소수 민족 및 노동계급의 문제 등과 학생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문제나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을 비롯하여, '돈'이라는 것이 제일의 관심사이고,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국적인 이슈가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학생운동들은 정치적으로 이슈화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하지만 혹자들은 2000년대의 다음 10년 동안 미국에서는 지배계급의 권력 증가와 소득 증가에 관련된 계층간 갈등의 심화로 오히려 대대적인 학생운동이 전개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고 있다.

2) 일 본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을 비롯한 일부 몇몇 대학들이 모든 면에서 수많은 대학들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학에서 학생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여파가 전국의 대학들로 파급되는 것이다. 일본의 대학들은 국가발전을 선도할 엘리트층을 육성하기도 하였고, 지배 세력 및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반체제 세력의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기관의 역할도 하였다. 그래서 정부와 반체제 세력간의 갈등의 악순환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³⁾

2차대전 이후 일본의 학생운동이 대규모화 되면서 과격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1948년 6월 '민주적 방법을 통한 전 일본 학생들의 요구 실현', '교육 투쟁을 통한 민주 일본의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공산당의

학생 조직으로 전학연(全學連: 全日本學生自治會總連合)이 결성되었다. 전학연(全學連)의 투쟁의 대상과 내용은 대부분 일본의 국내 정치나 외교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이러한 전학연(全學連)은 결성 2년 후부터는 분열을 거듭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극좌파인 공산동파(共産同派)는 '60년대에 전학연(全學連)의 사실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미·일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을 전개하여, 1959년 11월과 1960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난입하여 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 밖에 정치적·사회적인 문제를 내걸고 데모나 동맹 휴학을 일삼는 대학 단위의 조직이 있는데, 특히 동경대학과 일본대학에서 이들의 활동이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들은 60년대 말, 모든 기존의 이념을 부인하는 극단적 급진 단체인 '논 섹트派'(non sect派: 無黨派), 또는 '논 폴리派'(non political派: 無關心派)라고 자처하는 全學共闘會議(全共闘)를 조직하였다. 이 신 좌파 조직은 모든 반대 파벌, 학교 당국, 사회 질서, 인명 등을 부정함은 물론, 자신들의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대규모 시위로 시작된 그들의 투쟁 방법은 그후 휴학 및 파업, 건물 점거 등으로 점점 과격화하였다. 결국 1968년 6월 15일 동경대학 야스다(安田)강당 점거 사건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시계탑이 있는 이 강당은 대학 사무국 본부가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경대의 권위를 상징하는 건물이었다. 학생들의 건물 점거와 경찰력의 투입, 동경대 전 학부의 반발과 함께 동맹휴학과 단식투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1969년 동경대는 학원 소요는 입시의 중지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동경대학의 입시가 중지된 것은 동경대 분쟁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으로 일본 국민 전체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

3) 김도중 편역, 『세계의 학생운동』, 서울: 도서출판 힘, 1993, pp.95~106 참조

4) 崔敬洛, "日本の學生運動 實態", 『國際問題』, 1981. 3, pp.36~37.

었다.⁵⁾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일본 경제의 급속한 성장 속에서 이들의 과격한 질서 파괴 행동은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시키게 되었고, 이러한 강경책으로 '70년대에 들어와서는 학원 소요가 거의 사라지고 운동 단체에 가입한 학생들의 숫자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본의 학생운동은 전반적인 정치활동에 흡수되거나 아예 소멸되고 말았다. 전공투(全共闘)나 기타 무정부주의를 신봉하는 학생 활동가들은 일반 학생들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하여, 더 이상 학원 내에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학외 급진단체들과 연대를 모색하며 급진 운동의 전위대 역할을 하기도 했다.⁶⁾

1980년대 말 신 좌파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는 22개 조직에 약 1만 3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학생운동이 좌파에 의해서만 주도된 것은 아니다. 우익 학생단체들도 일본 학생운동의 오랜 전통 중의 하나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일본의 학생운동이 다른 국가들보다 더 격렬했던 것은 이를 주도한 주동 학생들이 좌경사상, 특히 급진적인 좌익 이데올로기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파벌들이 내건 명칭들 - 革命 마르크스派, 赤軍派, 學生解放戰線, 反帝學生評議會 등 - 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은 좌경사상, 그 중에서도 모험적인 급진주의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 역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을 심하게 띠어 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동경대는 분규의 장기화로, 입시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

던 것이다.⁷⁾

마지막으로 그 동안 일본 학생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좌익(新左翼)운동이 일어나며 상승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⁸⁾ 먼저 당시의 국제적 상황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월남전, 미국의 흑인 반란, 중국의 문화대혁명, 프랑스의 이른바 '5월 혁명', 그리고 미국의 버클리 대학으로부터 시작된 '스튜던트-파워'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것이다. 다음은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호경기를 맞이할 때 반 체제 투쟁이 고양된다고 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의 여유에서 생긴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급성장의 대가라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전후 '베이비 붐'으로 태어난 세대의 등장으로 인하여 대학 정원이 급격히 증가한 때이기도 하고, 핵가족화와 이혼의 증가로 사회적인 변란기를 맞이하여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부정되고 존경받는 부모가 줄어들어 자녀 교육이 어렵게 된 때이기도 했다. 또한 무책임한 저널리즘과 일부 지식인의 선동도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학원 내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대학 당국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학식있는 교수도 학생 지도에서는 무능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신좌익 운동(新左翼 運動)이 급속히 쇠퇴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그들의 노선이 너무 과격한 데다가 내부 폭력과 무차별 테러로 일반의 지지를 잃었고, 또한 자체 분열이 그들의 힘을 극도로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오일 쇼크, 달러 쇼크 등

5) 동경대의 학원 분쟁은 1968년 1월 29일, 인턴제도(無料研修醫制度)에 반대하는 의학부의 무기한 동맹휴학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의학부 내의 분쟁은 삼시간에 전대학으로 퍼져 3월에는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3월 1일에 의학부 교수회가 2월에 발생한 학생들의 폭력사건에 대해 17명의 학생을 징계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은 시간에 관여되지 않은 학생이었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尹景徹, 『日本學生運動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3, pp.329~330.

6) 김도중 편역, 『전계서』, p.105.

7) 李海斗, 『뉴 레프트의 性格 및 理念的 批判』, 『現代急進思想論文集』, 國民倫理研究 第18號(國民倫理學會, 1984.6), pp.580~581.

8) 尹景徹, 『前掲書』, pp.59~60.

으로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학생운동을 수용할 여유가 없어졌고, 정치적으로는 월남전의 종식으로 영·미에 보수주의가 부활되었으며, 소련의 국제 전략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오만·에디오피아 진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략에 따른 지원 등으로 일본인의 공산주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3) 중 국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느 국가들과는 달리 모택동의 집권 이후 중국 공산당에 의한 철저한 사회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해 왔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의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국가의 질서를 관장한다. 중국의 학생운동을 1980년대 중반을 전후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⁹⁾ 전통적으로 중국 학생들은 사회의 엘리트로 인정받아 왔으며, 그들 스스로 그러한 인식에 젖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적 희소성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특권 신분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인식하도록 했다.

모택동 사망(1976년 9월) 이후 1978년 11월 북경 대학가에서의 대자보 활동을 계기로 시작된 민주화 운동은 1981년 봄 마지막 활동가들이 체포됨에 따라 막을 내렸다. 그 후 학생운동은 1985년 9월까지 동면기에 들어가게 된다. '70년대 말 중국 학생들은 정치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시기는 모택동 사후 새로운 권력구조가 형성되는 과도기였으며 중국 공산당 내의 강경파인 사인방(장칭, 왕홍원, 장춘차오, 야오윈위안)이 숙청되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이기도 했다. 화국 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지도체제는 학생들이 학업에만 몰두하기를 강조하면서 사인방 추종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급진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과도한 관심을 꺾으려 노력하였다.

198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학생 시위의 원인은 경

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하는 4대 근대화 계획 및 개방정책에 대한 반발, 민족주의 의식의 재발, 민주화와 자유 확대에 대한 요구 등으로 표출되었다. 1985년 9월 발생한 학생 시위는 그 동안 누적되었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1984년 12월부터 1985년 1월까지 두달 동안 북경의 주요 대학 학생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저급한 급식 수준, 교육시설과 제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정부에 대해 간헐적으로 소규모 시위를 벌여왔다. 많은 불만 요인 중 하나는 그 동안 방학기간 동안에도 학생들에게 지불되어 왔던 보조금을 중지시킨 일이었다. 더구나 정부가 방학기간 중 보조금 지급을 중지시킬 무렵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가지 사건이 학생들의 대규모 시위를 자극하였다.

먼저 8월 중순 중국이 태평양전쟁 진승 기념 40주년 행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나가소네 수상은 14명의 1급 전범을 포함한 240만명의 일본인 전쟁희생자가 안장된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하여 참배하였다는 것과 9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경제 개혁정책에 관한 특별 집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보수파는 개혁정책의 역작용을 신랄히 비판함으로써 개혁파를 궁지에 몰아 넣었다는 것이다.

한달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이 두 사건은 학생들을 자극하게 되었고, 1985년 9월 18일에는 약 1천명의 중국학생들이 2차대전 기간 중 사망한 중국인들을 추모하는 집회를 가지면서, 참석자들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 가능성을 규탄하고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경제 침략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천안문 광장으로 행진하였다. 그러나 학생 시위는 시작부터 반일 감정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학생 시위는 중국 공산당 내의 권력투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요컨대, 학생들의 반일 감정을 내세운 시위와 당시 벌어진 당내 지도부의 경제 개혁정책을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의 갈등 사이에는 고도의 정치

9) 김도중 편역, 『전개서』, pp.71~91 참조.

적 목적이 숨어있는 밀집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 시위가 단순한 권력 투쟁의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일 감정의외에도 학생들자체의 순수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첫째, 경제 개혁과 개방정책에 따른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하는 주장이었고, 둘째, 당의 사상교육 등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학생생활에 대한 철저한 관여와 감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5년 9월의 학생 소요를 평가하면, 전통적으로 중국 학생들이 발휘해왔던 사회 대변인의 역할이 되살아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5년 학생 시위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면 그 다음 해에 발생한 큰 규모의 시위는 정치적 개혁을 둘러싸고 일어난 학생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 중국 정치 과정에 미친 영향은 1985년의 시위에 비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 학생 시위를 이유로 당내 보수파는 등소평의 신임을 받고 있던 호요방 당주석을 제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와 함께 보수파는 개방화의 부산물인 자본주의의 해악을 추방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었다.

학생 시위는 11월부터 간헐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위는 곧 학원 소요 사태로 확대되었고, 적어도 전국 주요 15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초기 시위는 중앙정부와는 무관한 학내의 억압적인 분위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상해의 동화 사범대학 학생들은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아침 체조시간 참석 의무를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는 중국 학생들에게는 학원의 비민주적 운영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으며, 학내 민주화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요구 사항은 점점 확대되었다.

1986년 6월부터 등소평의 공개적인 지원 아래 정치 개혁에 관한 토론이 언론과 학원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적 관심이나 의식이 높은 학생들은 이 기회를 이용 교육여건과 관련된 불만을 정치 개혁 논쟁에 연계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학생 시위를 유발시킨 것은 중화과학기술대학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학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이 대학이 거둔 여러 성과 중 '신뢰성 있는 지식인들'이라는 평가나 과거 우익분자라고 낙인찍혔던 '팡리지' 같은 교수에게 중요한 보직을 맡긴 것 등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중국 내에서 유명한 천체물리학자인 팡 교수는 중국의 주요 대학을 순회하며 학생들에게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팡 교수는 금세기 초반 반제 민주주의 투쟁에 앞장섰던 선배 학생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주의는 집권자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그의 언동은 학생들과 중국 당국과의 긴장 관계를 고조시켰음은 물론이다. 특히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상해에서 발생한 학생 시위에는 최소 2만 명, 최고 7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의 가두 시위였다. 당시 상해 대학생들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중국정치의 근본적인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상해 시위를 계기로 이러한 민주화 요구 시위는 북경 등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1986년 전면적인 민주 개혁정치를 요구했던 학생운동은 보수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우려한 개혁파도 시위 확산을 저지하는 데 동조함으로써 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학생 소요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호요방 당 주석이 실각하고 시위 주동학생들과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과 체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학생들의 민주화에 대한 신념은 더욱 공고해졌고, 그 요구 또한 추상적인 것에서 매우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식되어 갔다. 요컨대, 민주화를 향한 중국 학생운동이 본래도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6년 중국 학생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두드러

진 특징 중의 하나는 해외유학 중국 학생들의 적극적인 역할이었다. 재미유학생 2천 명은 중국 내 '극좌주의'와 문화혁명 기간 중의 광적인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서한에 연대 서명하여 중국 정부에 보냈다. 여기에서 학생들은 주요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애국심에서 우려나온 것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의 시대에 역류하는 정책과 지식인에 대한 탄압이 중국의 대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당국은 '80년대 자발적으로 분출된 학생운동이 과거 당에 의해 조정되었던 '50년대나 '60년대 문화혁명 기간 중의 학생운동과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애국심이란 당의 지도력에 복종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했다. 모택동 사후 가속화된 학생들의 태도 및 신념의 변화는 공산당과 학생들 사이에 유지되어 온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학생들의 공산당 가입이 현저히 감소되는 현상에서 중국 정부의 위기감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80년대 중국의 신세대가 혁명 당시의 보수적 가치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구세대의 지도력에 동조하지 않음을 입증한 것이며, 더욱이 대학에 대한 당의 통제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러한 당과 학생들 간의 갈등적 관계의 진행은 결국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학생들을 비롯한 활동가들의 대량 학살로 이어져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다.¹⁰⁾ 그러나 중국 정부의 대규모 탄압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학생들의 정치적 잠재력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집권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모택동 사후 중국 정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를 위해 개방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통합이 가속화 되었고, 공공이익 보다는 개인

적인 부의 축적 등이 강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 왔던 공동체적 집단주의 원칙보다 개인주의가 팽배되었다. 따라서 체제를 지탱해 왔던 사상과 이념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여 중국 공산당이 그 동안 발휘해 왔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결 언

인도네시아의 경우, 1966년 수하르토(Suharto)를 권좌에 오르게 한 것도 학생이었고, 또, 32년이 지난 1998년 5월 21일 그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한 것을 비롯해 3일 동안 자카르타의 국회의사당 건물을 장악하고 권좌를 부통령인 하비비(B. J. Hibibie)에게 물려 줄 것을 강요해 정치 개혁운동의 선봉이 되었던 당사자도 학생이었다. 1968년 몇몇 동구라파 국가를 포함하여 유럽 전 지역의 학생들은 그 당시의 전후 보수주의와 전통주의에 반대하여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큰 성과는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의 몇몇 부문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도 하였다. 또, 1979년 이란의 학생들은 팔레비(Pahlevi)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 중반에는 필리핀의 정치 지도자를 물러나게 한 것도 학생들이었다. 1980년 말 동구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가져오게 한 장본인들도 바로 학생들이었다. 이들 나라들은 모두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열고자 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미얀마, 콩고, 러시아, 프랑스, 케냐 등의 지역에서도 학생운동이 빈발하고 있다. 이들은 비싼 대학의 등록금에 항의하면서 경찰과 격렬히 충돌하기도 한다. 콩고의 대학생들은 1996년 장기집권하고 있던 모부투 세세-세코

10) 1989년 4월 15일 호요방 前 黨 總書記가 사망하자 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 일반 시민이 가세하여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했다.

(Mobutu Sese-Seko)를 축출시켰던 게릴라 지도자인 라우렌트 카빌라(Laurent Kabila)의 통치에 저항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한 나라의 대학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엘리트 성인들을 육성하게 된다. 그들은 리더십의 역량을 키워서 사회의 변화에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진다. 모든 국가에서 대학들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보장받고, 정치적 억압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독특한 집단으로서의 자아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국(poor nations) 학생들의 경우 엘리트 집단으로 간주되어 서구의 선진 부유국 학생들에 비하여 국가·사회 발전의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어 진다. 아직도 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높은 정도의 존경심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여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엔진.

그리고 원동력인 것이다. 만일 중국과 베트남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아마도 그것은 학생들에 의한 희생일 것이다. **문명**

전신목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한국 산업화과정에서의 노동통제와 노동저항'을 받았으며, 현재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지방 및 노동정책분야이며, 현재 북한 및 통일정책, 노동 및 여가행정 분야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정책연구』, 『민족통일과 북한』, 『권력과 지성인(번역본)』이 있으며, 『한반도 통일과 남북체제 통합에 관한 연구』, 『탈북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민주화운동의 좌절과 국가의 노동정책』, 『집단행동으로서의 사회운동-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